광주매일신문·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서정' 발간

광주 문학인들이 선물하는 시와 수필

'광주서정' 광주매일신문·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오늘도 사랑방에 앉아 내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을 살피며 나를 정화한다.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가치를 찾는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박명순의 '사랑방' 일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잿빛으로 가득한 요즘, 시민들에게 위로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하는 작품집이 발간됐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문인협회는 최근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서정'을 내 놓았다.

'광주서정'은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격주로 광주매일신문에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게재됐던 시와 수필을 정리한 작품집이다.

그동안 광주문인협회 750여 회원 중에서 200여명의 시인과 수필가의 작품이 지면에 게재됐다. 이번 '광주서정'에는 120명의 시인과 수필가 30명의 작품이 실렸다.

당시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지역 문인들의 땀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이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면을 배정했다.

또한 지적 산물인 시와 수필이 독자들에게 읽히면서 작가들은 다시한번 문학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던 독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신문에 게재된 '문학마당'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격주 화요일 아침에 광주문인협회에서 엄선한 3편의 시와 수필 1편이 선 보였다. 게재된 시와 수필에는 전문평론가(김종 시인)의 해설이 뒤따랐다.

탁인석 광주문인협회장은 "광주문협과 광주매일신문이 의기투합해 그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 작품들을 책으로 발간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우리가 펴낸 '광주서정'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며 작가들과 기쁨의 축배를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는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 편의 시와 수필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광주매일신문은 앞으로도 우리 삶에 문학의 향기가 흠뻑 스며들도록 작품을 소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통일 되면 한반도 끝까지 걷고 싶어"

나종대씨 땅끝→통일전망대 산행
1천350㎞ 대장정 '땅통종주' 출간
'최초 단독 종주' 생생한 기록 담아

"백두대간을 종주한 산악인은 많지만, 대간길에서 그 끝을 넘어 길을 더 나아간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백두대간의 양쪽 끝에서 남한의 끝까지, 더욱 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나종대(61·나사모산우회·사진)씨가 최근 1천350㎞ 산행 종주길을 완주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책 '땅통종주'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월간 '사람과 산'에 19개월 동안 연재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65개 구간을 3부 19개 장으로 나눠 구성했다.

'땅통종주'는 땅끝마을과 통일전망대를 잇는 종주길이라는 뜻이다.

나씨가 직접 기획한 이 종주길은 월출산에서 출발해 무등산, 영취산, 속리산, 매봉산(태백), 설악산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2019년 4월14일 땅끝에서 우리나라 최초 땅통종주길에 올랐다. 종주는 호남의 월출산, 무등산, 내장산과 백두대간의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을 거쳤다. 장장 1천 350㎞에 달한 대장정은 2020년 11월1일 통일전망대에서 마쳤다.

책을 펼치면 저자가 밟고 지나간 산줄기를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오롯이 발품 팔아 쓴 종주 흔적이기에, 저자와 함께 산줄기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글과 사진이 생생하다. 수 많은 산줄기를 넘나드는 고군분투는 절로 경외감마저 들게 한다.

책은 단순한 종주산행 가이드 책자가 아니다. 산줄기와 산자락 주변의 인문과 지리가 담겨있다.

저자가 제15구간 강천산 구역을 지날 때 '산경표'의 저자 여암 신경준 선생 생가에 들러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신경준 선생이 족보 형태로 만든 산경표에 의해 우리는 물을 건너지 않고 전 국토를 등산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한다. 또한 동학혁명 발상지 정읍의 산을 지날 때는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를 읽으며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걸었다.

게다가 책에는 땅통종주를 하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 얘기도 깃들어 있다. 함께 산행하거나 산에서 만난 사람들, 땅통종주를 응원해 준 친구들과 가족 등등. 휴머니즘이 책 전반에 가득하다.

저자는 '땅통종주'가 앞으로 하나의 붐이 되고 뒤따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온성까지 가겠다는 큰 꿈도 전한다. /박희중 기자

상처받고 소외된 여성들의 고단하고 척박한 삶 이야기

임미나 작가 첫 소설집 '벼꽃' 발표

"세상 구석구석에서 나를 비롯해 미미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고, 주목을 받고, 세상을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어느 누구도 이름 석 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하찮게 구석으로 밀리면서도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2016년 광주·전남작가 소설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임미나(사진) 작가가 신작 소설집 '벼꽃'(아꿈 刊)을 펴냈다.

임 작가의 소설집 벼꽃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소외된 여성들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작가의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책에는 모두 8편의 중·단편이 실렸다.

돈을 들고 튄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편지를 쓰는 10대 미혼모의 이야기 '향기'. 한 때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의 영상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결혼 할 남자의 눈에 띄어 파국을 맞는 '눈'의 주인공 20대 여성. 교통사고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20대 여성주인공의 할머니와 동거의 불협화음과 화해를 다룬 '바람의 집'. 모든 것을 며느리의 복 없음으로 몰아세우는 시어머니를 둔30대 여성의 무기력한 삶과 불행의 대물림을 그린

'복'. 남편사업 실패 후 남편의 본가가 있는 섬으로 귀향해 시어머니가 당한 성폭행을 자신이 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섬'. 포대를 들고 구걸로 "십원만 주세요"를 외치며 길 위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40대 여성주인공의 '벼꽃'에서, 구걸 행위마저도 남편과 살아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봄날'에서 50대 또는 60대 여성에게 남은 건 레빈 튜브, 콧줄을 꽂고 침대에 묶여 있거나 환시(幻視)에 시달리는 병든 몸뿐이다.

임 작가의 소설 속 여성들의 삶은 한결같이 각박하다.

작가의 선택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모든 주인공이 여성이면서, 그 여성들은 모두 상처 받은, 이별 또는 죽음으로 배신하는 남자의 그늘에 가려진 여성들이다.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여성들의 각박함을 선(善)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들 나름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함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기적이거나, 착하기만 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총체적 모습이자 우리 사회의 단면일 수 있다.

'향기'의 미혼모, '눈'의 동성애, '바람의 집'의 조손가정, '봄날'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요양원의 현주소, '섬'의 성폭력 피해를 감추기에 급급한 여성 노인 등을 통해,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며 글을 쓰는 작가적 근성과 사회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박희중 기자

"면역력 강화, 최고 자연 비법은 황칠"

'자연 치유' 김동석 원장
'백세 면역력 황칠의 기적' 출간

"건강을 지키고, 암을 치유하기 위해 가장 기초돼야 하는 것은 바로 체질에 맞는 면역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면역력을 높여야만 치료 효율이 높은데 그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을 통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황칠 나무에서 찾아냈죠."

담양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이 황칠나무를 병원 인근에 직접 재배하면서 그 효능과 효과를 검증해 책으로 펴냈다.

'황칠의 기적'이라는 이 책에는 몸에 좋은 한약재와 물과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에 대한 상식 등 그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치료한 실제 황칠의 효과가 가득 담겨 있다.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지금껏 환자들에게 적용시켜 효과를 본 황칠의 효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한 황칠을 자신의 체질에 맞게 환, 차, 된장, 한약재 등으로 가공해 먹을 수 있도록 음용 가능한 약재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황칠나무의 해독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양기혈을 보할 수 있는 정보를 실었다.

김 원장은 "각종 질병들의 원인을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이고, 외적인 원인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잘못된 생활습관과 유해한 환경을 개선해야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S.L.T Silver Land Treadmil
www.slhealth.co.kr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 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윙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 기능 | 온열기능 | 뮤직 플레이 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내피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 스마트한 마사지볼 | 인체공학적 L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